



무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전도마을서 자장면 나눔

무주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지난 12일 무주읍 전도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자장면 나눔 봉사활동'은 소방관서와 거리가 멀어 평소 소방대원들을 접할 기회가 적은 농촌 지역 주민들과 만나 정을 나누고,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의용소방대원 20명과 무주191안전센터 소방공무원 3명이 참여했으며, 대원들은 마을회관에서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한 자장면을 주민들에게 전하며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전병승 남상연회장은 "대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자장면 한 그릇이 마을 어르신들께 작게나마 기쁨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백정애 여성연합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의용소방대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나눔 행사와 더불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의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소화기 사용법 설명 및 실습 소방안전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무주=손흥기 기자



호원대학교는 13일 호원대 문화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스포츠단 출정식'을 개최하고, 시즌 개막을 알렸다.

시즌 개막... 올 대회 선전 다짐

호원대 스포츠단, 2026학년도 출정식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13일 호원대 문화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스포츠단 출정식'을 개최하고, 시즌 개막을 알렸다.

이날 출정식은 학생 선수 177명과 지도자 19명이 참석했으며, 강희성 총장과 정의봉 부총장 김나형 기획처장 서충길 학생지원처장, 스포츠무도학과 교수진 등 교내 관계자들이 함께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총장 격려사, 선수단

결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 가운데, 시즌을 앞둔 선수단의 사기를 높이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출정식은 각종 대회 선전을 다짐하고, 선수단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호원대학교 스포츠단은 지도자와 학생 선수들의 꾸준한 노력 속에 지난 2025년 전국 대학 운동부 종합 평가에서 130개 대학 중 12위를 기록하며 전국 상위권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교신=김만호 기자



전주대-하림, 농생명 AX 기반 산학협력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최근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과 '농생명 AX(인공지능 전환) 기반 융합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TP)이 추진하는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AX대학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산업 현장의 전문지식(도메인)과 AI 기술을 결합해 현장 혁신을 주도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주대학교가 식품 가치사슬 전주기 통합 경영하는 종합식품기업 (주)하림과 손잡고 농생명 식품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식품 가치사슬 전주기 데이터의 공동 구축·공유 및 AI 기반 스마트 생산·유통 혁신 기술 공동 연구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식품 솔루션·푸드테크 및 농생명 바이오 분야 협력 △산업 현장 수요 기반 농생명 AX 교육과정 및 융합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한 '농생명 AX 혁신센터'를 공동 설립해 (주)하림의 실증 데이터와 전주대의 AI 연구 역량을 결합한 실전형 AI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전주대학교는 (주)하림이 보유한 식품 가치사슬 전주기 실증 데이터를 교육·연구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주)하림은 전주대학교의 AI 연구 역량과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를 통해 식품산업 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한층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김재훈 기자



김제 치매안심센터, 헤아림 치매가족교실 운영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0일부터 치매환자 가족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헤아림 치매가족교실'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돌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헤아림 치매가족교실'은 10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총 8회에 걸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되며,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1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의 위험요인 및 정신행동증상, △치매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가족의 자기돌봄 등 치매 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공예·원예·신체활동 놀이 등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참여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박노태 기자

남원시,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 자립역량교육

남원시는 13일 남원지역 자활센터 교육장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1기 자립역량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통장 가입자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장형석 과장을 초청해 평생 월급 프로젝트 및 통장 사업 유지 및 해지 안내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김현욱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자산형성 가입자들의 중도 포기 없는 사업 참여를 위해 전문가 위탁 교육을 통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활근로자들에게 자립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주민들, 대동길놀이 준비 '착착'

남원시 동충동(동장 박미라)은 제96회 춘향제를 앞두고 대동길놀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동충동은 오는 5월 3일 대동길놀이에 '허사출두'를 주제로 15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렬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동충동 자치사랑방 7개 프로그램 수강생이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무대로 동충동과 자치사랑방 강사들이 함께 기획, 참여자들은 춘향제 전까지 남원사랑나눔어울림센터에서 합동연습을 이어가며, 각 프로그램 수강 시간에 도 라인댄스와 사랑춤을 함께 연습하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자치도청 빙상팀, 쇼트트랙 女 국가대표 3명 선발

최지현 · 노아름 · 박지원 발탁

2026-27 시즌 국제대회 출전

전북특별자치도청 빙상팀이 2026-27 시즌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에 3명을 배출하며 전북 빙상의 자력을 입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열린 2026-27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2차전 여자부 경기에서 도청 소속 최지현, 노아름, 박지원 선수가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전은 전국 최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행됐으며, 세 선수는 안정된 기량과 꾸준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최지현

노아름

박지원

특히 최지현과 노아름은 2년 연속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전북 여자 빙상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세 선수는 그동안 전국 대회에서 꾸준히 성적을 쌓아온 전북특별자치도청 빙상팀 소속 선수들로, 이번 선발을 계기로 향후 1년간 국가대표 자격으로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세 선수가 전북 빙상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무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소상공 상생 실천... 전은, '4월 동행축제' 참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4월 동행축제'에 참여하며 상생 금융 실천에 나섰다.

전북은행은 중소기업부 주관으로 지난 11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막한 '4월 동행축제' 특별행사에 참여해 11일과 12일 이틀간 현장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전북은행은 행사장 내 '브라보 코리아'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찾아가는 이동점포인 '썬버스'를 배치해 방문객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북은행은 이번 참여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보탤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금융지원과 상생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4월 동행축제'는 다음 달 10일까지 30일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2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와 이벤트가 운영되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옥도면, 고령층 건강안심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옥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전재인)는 13일 고령층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응급상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상 속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급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내 고령층 40세대를 대상으로 240만원 상당의 건강안심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안심꾸러미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구급함을 비롯해 기본적인 건강관리 물품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위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신=김만호 기자

알림

▲김강주 제10대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취임식은 일사: 15일(수) 오후 2시, 장소: 국립군산대 아카데미홀



부안 백산면민의 날 행사 성료

부안군 백산면은 지난 11일 백산면 체육회(회장 유청) 주관으로 제67회 백산면민의 날 행사를 백산다목적체육센터에서 정회영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내빈과 1,000여명의 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신실동장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부안군 향우회 이윤복 회장과 백산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전달하고, 백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0만원을 기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동진면민의 날 행사 개최

부안군 동진면은 지난 11일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에서 제10회 동진면민의 날 행사를 동진면 사회단체협의회(회장 전종각)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관·사회단체장과 면민 등 800여명이 참석해 부안군 군립농약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고고장구, 색소폰 기타 연주 등 주민자치 공연이 이어지며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동진면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이승용)에서 근농인제 육성재단 장학금 100만원 기탁과 죽림마을 김석철의 자 김은총 씨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직원 화합 연수 진행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보령 및 서천 일대에서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바음 ON, 소통 UP, 신뢰 GO'를 주제로 직원 화합 연수를 실시했다.

첫째 날에는 '세대 공감 전략 및 소통 특강'을 통해 직원들이 서로 다른 세대의 가치관과 경험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문화체험 활동을 함께했다. 둘째 날에는 국립생태원을 탐방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명 존중의 태도와 환경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